

코로나 19로 피해를 절망의 광야를 지나며

성경말씀: 신8:1-6

두 달 전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 이번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지 몰랐다. 더욱이 그때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미국에까지, 현재 이탈리아 하루 사망자 1000명, 미국 확진자 27일 금요일 기준 10만 명(약 반이 뉴욕 주), 최대 확진자 국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2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1주일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와 관련해 "외출 자제 명령이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위축 범위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일부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퍼 부양책 2700조,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

한국의 상황, 삼일회계법인은 27일 발간한 '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심각한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6%, 24.7%, 15.3%로 세 지역 비중이 60% 수준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특히 소비 위주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은 전 세계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 등은 무상 재난 지원금, --- 등은 모든 사람 100만 원, 50조가 넘는다. 어디에서 이런 비용을 가져오는가? 누가 갖을 것인가?

전 세계로 퍼지는 우한 폐렴 팬데믹을 보면서 이번 역병은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롬1:18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부인한다면 과연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부의 반 강압적 예배 중단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시민이다. 당연히 우리는 정부의 합당한 조치에는 따라야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최소 인원이 참가한 채 예배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못 모인다. 이것만 내세우면 안 된다.

이유: 국가가 모든 모임을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 극장, 나이트클럽,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안 된다. 외부 출입 모두 안 된다. 따라서 당연히 교회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 온 국민이 동시에 협조하며 모임 자제

존 파이퍼 목사: 나도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부부가 예배 드리는 귀중한 시간 발견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흥업소, 식당, 극장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다 다니게 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마저도 엇그제는 모든 나라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여전히 입국자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만 명부를 적어라, 2미터 간격을 유지해라. 모이지 말아라. 300만 원 벌금을 먹이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

행정 명령 등을 내리고 시행하는 자들: -----, 무상복지 추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 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명부를 적고 있는지, 2미터 간격 유지하고 있는지,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식당, 극장도 명부 작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그래서 교회 탄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좌익 세력의 교회 파괴 공작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로 교회가 붕괴될 수 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모여야 교회다. 그래서 장로교의 여러 교단들이 시의 적절하게 성명서를 내며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난생 처음 이런 사태를 당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삶이 메마르고
피폐한 가운데 있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을 보니 더 그렇다.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낸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프랑스는 외출 허가증이 없으면 못 나간다. 우리나라도 아이들 학교 못 간다. 장기화
되면서 공포가 생긴다.

이러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40년간 혹독한 삶,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들을 구속할 모세를 보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홍해, 광야로 들어감,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러는 가운데 이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냄, 10명의 악한 보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일

광야(Wilderness): 305번,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광야: 물이 없는 곳,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신8:15)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신9:7).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신32:10).

지난 1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많이 들었다.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것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코로나 19로 피폐한 절망의 광야를 지나며 >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피폐한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다. 사망과 불 뱀과 갈증과 피폐함이 부르짖는 곳
경제가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예배 중단 위기에 서 있다. 모이지 못해 영적 피폐함의 위기
이런 와중에 심한 병에 걸린 분들이 있다.

유방암 선고 받고 결국 양쪽 가슴을 절제한 자매가 있다.

5개월 시한부 설고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난소암
자매가 있다. 방광암 재발 수술을 받은 형제가 있다.

취직이 안 돼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실직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코로나 19 환자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모두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한 가운데 서 있다.

신명기 8장

모세의 유언,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낸 둘째 세대에게 주는 교훈

1.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1).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상속물을 차지할 수 있다.
2. 지금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라(2). 하나님의 목적
3.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3).
4.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4).

5.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5).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6. 결론(6)
7. 아이러니 가장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았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다.
8. 코로나로 인한 이 피폐한 때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기간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하나님께서 피폐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있다.

우리,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온 세상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시험하신다.

1. 하나님이 존재한다. 2.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3.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 4.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해야 한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곧 7년 환난기가 닥침을 알아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종교 일치 운동, 오순절 은사 신비주의
2. 이미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해 말씀을 주셨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때와 롯의 때, 성적 퇴폐, 동성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믿는 사람들도 지금 광야, 3절을 기억하라. 병에 걸린 모든 지체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주여, 믿습시다!” 외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
4.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광야, 지난 72년 동안 자유 민주주의 국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무상 복지만 원한다. 직장을 주는 기업, 기업가를 우습게 생각한다. 드디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기 시작한다. 코로나 사태를 당하니 또 다시 백성들을 무상복지 돈으로 사려는 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미국 등 우리를 도와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등을 지고 친중/중북하는 자들이 활개를 펴고 다닌다.
성경의 가르침: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피폐한 이념의 광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갈5:1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

지금 우리는 지금 황폐한 광야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있다.

우리,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 국민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신30:19